

# 해남 농수특산물, 국회서 '엄지척' 완판 행렬

### 해남 건어물·김치·장류·고구마·참기름 직거래 장터 '인기' 이달 중순부터 해남배추 본격 생산...김장 늦추기 캠페인

해남군 농수특산물이 국회에 진출해 완판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협식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김장철을 앞둔 시기를 맞아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온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해남군의

요청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 나서 의미있는 자리가 성사됐다.

해남의 건어물, 김치, 장류, 고구마, 참기름 등을 판매한 직거래장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대부분 품목이 완판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형배·민병덕·박은정·서상석·서영교·전현희·정동영·박은정 의원 등 38명의 국회의원이 국



해남군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진욱·민병덕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군 제공>

정감사로 바뀐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 해남 농산물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최근 배추값 상승에 해남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장 늦추기 캠페인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1월 중순부터 속이 딱찬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배추가격이 하락한다"며 "서울 소비자들도 2주만 늦춰 11월20일 이후 김장을 하면 합리적인 가격이 맛있는 김장을 할 수 있다"며 김장 늦추기 의미를 설명했다.

박지원 국회의원도 "해남배추는 전국민에게 큰 희망"이라며 "김장 2주만 늦추면 전 국민의 배추 고민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27일 부산 해운대구에 열린 김치축제에서도 해남 김치가

완판되는 등 해남배추의 인기는 상승기를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11월1-3일 두릅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해남미남축제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김치비빔 체험행사도 해남김치 판매, 절임배추 예약 등으로 이 같은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배추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현재의 재배 현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소비자들도 물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김치의 날인 11월22일 전후에 김장을 한다면 맛있는 김장을 부담없이 할 수 있으므로 김장을 조금만 늦추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은목서 향기 가득” 목포 양을산 트락 축제 ‘성황’

### 상동 자매결연지 참여...국립의대 유치 퍼포먼스 '눈길'

“10월의 끝자락에서 양을산의 은목서 향기를 나누며 상동 양을산 트락 축제를 맡겨주세요.”

목포시 상동양을산트락축제추진위원회는 31일 양을산 레포츠공원에서 '시월에 멋진날 양을산의 향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제11회 양을산 트락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내 19개 경로당, 33개동, 다문화 가정, 자매결연지(신안군 신의면, 강진군 도암면) 등 600여명이 함께 하는 지역내 동네축제로는 최대 인원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익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이동수 부의장, 최정훈 도의원, 문차복·최원석 시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축제는 ▲식전공연(장구난타, 어린이 합창, 라인댄스, 태권도 시범) ▲개막식 ▲분행사(댄스스포츠, 초청가수, 동민 노래자랑, 색소폰 공연) ▲부대행사(떡거리장터, 음식부사, 특산품판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신안군 신의면, 강진군 도암면과 함께 목포·신안 통합과 국립의대 목포 유치를 염원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또한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으로 신의면 천일염, 도암면 쌀귀리 농특산품을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 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장홍풍 축제추진위원장은 "시월의 마지막 날 가을의 끝자락에 양을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멋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주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품격 있는 행복 동네 상동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양선 상동장은 "양을산 레포츠공원은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은목서 향기가 퍼지는 시민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행사장 주변에 은목서를 전제적으로 식재해 명품 축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군이 최근 신지명사십리길을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하며 맨발 걷기 동호인, 군민, 관광객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맨발 걷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맨발 걷기 치유길 1호' 선포

### 제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 성료

완도군이 신지 명사십리를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하며 제1회 맨발 걷기 페스티벌을 성료했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해양수산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맨발학교완도군

지회가 후원하는 '제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이철·신이준 도의원, 군의원, 맨발 걷기 동호인, 군민, 관광객 등 400여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신지 명사십리를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하는 선포식과 치유 사례 발표, 맨발 걷기 특강, 모래 해변 2km 및 황토길 맨발 걷기 등이 진행됐다.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선포된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풍부하다. 특히

명사십리의 모래는 가늘고 단단해서 맨발로 걷기에 좋다. 또한 국제환경교육재단(FEE)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은 곳이다.

최선이 완도군해양산업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맨발로 걷기 좋은 청정 해변을 치유길 1호로 선포하게 됐다"며 "맨발 걷기가 더욱 활성화돼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신안군, '오션뷰' 1004카페 하의점 개점

### 주민 휴식·커뮤니티 공간 활용

신안군은 31일 "지난 29일 하의역 객역 선터미널 2층에 '1004카페 하의점(사진)'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4카페 하의점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힐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최미숙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1004카페 하의점은 바다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는 엔틱한 원목 소재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카페 공간은 신안군 자활자금 1천200만원, 중앙자산개발펀드 2천400만원을 지원받아 커피머신, 장비 등을 설치했



다. 운영은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 받은 다문화 이주여성과 저소득층 주민 2명이 맡는다. '1004카페 하의점'은

섬을 입도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여객선터미널 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의미가 색다르다.

이영희 신안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기찬 자활사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우량 군수는 "1004카페 하의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주민들이 차 한 잔의 여유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군 종합민원실 29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31일 "2024년 1월부터 6월 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95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11월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

## 무안군, 청춘남녀 '1+1 솔로둘로' 이벤트

### 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신청...참가비 무료

무안군은 31일 "오는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간 청춘남녀 만남 이벤트 '1+1 솔로둘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안군이 주최하는 첫 로망스 이벤트로 진정한 인연을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커피프린지', '우리 식사할래요', '감성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참가자들은 마치 순정만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가명을 사용하며, 커플 매칭 결과는 비공개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도록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비는 무료이며 11월8일까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061-450-4181·2)으로 하면 된다. /무안=김성호기자

## 나주시당구연맹, 호남권당구대회 성료

### 낙다운 토너먼트제...우승 최지만·준우승 주용선

나주시당구연맹은 "최근 이틀간 나주 아방궁당구장 등 일원에서 개최된 '2024년 나주시당구연맹회장배 호남권 당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나주시당구연맹 주최·주관, 전남당구연맹·일성기업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나주 아방궁당구장, J당구장, 공당구장, 규당구장 등 4곳에서 3루선 개인전 경기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김철민·한형철 나주시의회 의원, 김재역 나주시체육회장, 조호석 전남당구연맹회장, 이진우 나주시당구연맹회장 등 내·외빈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호남권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당구동호인 300명이 참가해 낙다운 토너먼트제로 본인 핸디의 75% 달성 시 시기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대회 결과, 우승은 전북 군산 S당구클럽 최지만 선수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에는 목포 팀몬스터 주용선, 공동 3위엔 나주 J당구클럽 박훈, 목포 HD동호회 이창주 선수가 각각 입상했다.

공동 5위에는 나주 규당구클럽 이재호, 목포 마블 조호석, 나주 당일치기 박진수, 광양 달인 박찬서 선수가 차지



했다. 공동 9위엔 광주 어계인 김용래, 규플레이 박준수, 어울림 박홍남, 전북 남원 상아 조성식, 목포 한결 박지원, HD 임태호, 나주 GON 전병건, 목사골우당탕 소년구 선수수가 각각 차지했다.

대회 우승 선수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 준우승 선수에 상금 100만원과 상패, 공동 3위 2위에 상금 50만원과 상패, 공동 5위 4위에 훈련보조금 20만원, 공동 9위 8위에 훈련보조금 10만원씩이 각각 수여됐다.

이진우 나주시당구연맹 회장은 "300명의 많은 호남권 당구동호인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열린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당구동호인들의 자부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